

예레미야 미 주저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대언자 예레미야

성경말씀: 렘1

2012년 9월부터 40주에 걸쳐서 예레미야 강해

지난 몇 년 동안 성경 맥잡기 강해, 특히 이사야 이후 대언서들 완료

맥잡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성경 공부, 그래서 후대를 위해 예레미야도 맥잡기 필요

10-12회에 걸쳐서 전체를 살펴보려고 함. 역시 위어스비 주석을 텍스트로 해서 살펴나간다.

예레미야 강해의 필요성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행20:27).

지금까지 13년 동안 성경의 여러 주제를 다루었음. 잘못하면 목사가 선호하는 주제만 다루게 됨.

그래서 한 책을 정해 전체 내용을 강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모세, 다니엘, 바울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반역하는 자들, 불신자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레미야서는 21세기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

배경(1-3)

- A. 이름: 나면서부터 제사장, 예루살렘 북쪽 5km 베냐민 땅 아나돗에 거함.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를 뜻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로서 대언자들 가운데 읊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16:2).
- B. 기록 시기: 주전 590년경, 성격: 역사, 대언, 자서전, 기간: 약 41년, 수신자: 유다 백성
- C. 주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들의 죄로 인한 임박한 심판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시대에 의로운 가치를 통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
- D. 목적: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통해 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 E. 배경: 솔로몬의 죽음과 왕국 분열 이후에 유다 왕국의 역사는 여러 차례의 종교적 타락과 개혁으로 이어졌다. 요시아(8세에 왕이 되어 39세에 죽음)는 마지막으로 선정을 베푼 왕이었으며 그는 율법서를 발견하면서 마지막 개혁을 이룬다. 하지만 39세에 파라오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다(대하35:20-27).
 1.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3달 통치, 파라오 느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11년, 느부갓네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3달, 느부갓네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마지막 왕, 11년, 느부갓네살), 요시아 이후의 유다 역사는 계속되는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타락의 역사이며 결국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BC586년). 1차 BC 606, 2차 597, 3차 586
 2. 대언자 예레미야는 배도와 타락의 시기에 활동하였다. 북쪽의 아시리아, 남쪽의 이집트, 동쪽의 바빌론, 아시리아 제국은 주전 600년경에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된 뒤 붕괴되었고 바빌론이 그 당시 문명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으며 이때에 예루살렘에서는 두 파가 다투었다. 이집트 지지자들은 이집트가 세계의 지배자로 재등장하고 있으니 이집트를 의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반면에 바빌론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민족이 생존하는 대가로 바빌론에 항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3.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통치 제13년에 활동을 시작하였고(BC 628) 바빌론 포로 초기까지 계속해서 활동하였으며 이집트에서 생을 마쳤다(BC 586).

우리나라의 상황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열강들 가운데 놓임, 어느 편에 붙을 것인가?

1945년 이후로 남과 북이 나뉘어 총부리를 겨누며 대치하는 상황, 극도의 이념 분쟁

윤리와 도덕의 실종: 극악무도한 범죄, 강간, 살인, 아동 성폭력,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고 한때 1000만 성도를 자랑하다가 이제는 900만으로 줄

계속해서 천주교는 수가 늘고 기독교는 수가 준다. 청년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교회의 세속화(프로그램, 은사주의, 기복주의, 음악, 탐욕, 세습)

1980년대 이후의 풍요로 인해 성경 말씀을 찾지 않는 세대, 설교 대신 프로그램

유다의 배도 속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도 자신의 말을 전달할 대언자를 찾으신다.
이런 시점에 우리 성경 신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잘 말해 준다.

〈주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대언자 예레미야〉

1. 그의 사명은 막중하였다(1).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출생하기도 전에 그를 알고 빚고 구분하여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움(5)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1), 제사장도 힘든데 하나님은 그를 대언자로 세우신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마지못해 순종한다.

제사장: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도 하면 된다. 헌물, 나병 환자 치료, 성경 가르치기 등

대언자: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매일 다르다. 긴장 속에 살아야 한다.

제사장은 외적인 것 교정, 대언자는 사람의 내부 교정

제사장은 주로 개인 상대, 대언자는 대중 상대, 전 민족 상대

너무나 어렵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했다.

부수는 자, 세우는 자(1:9-10)

기둥과 벽(1:17-18), 파수꾼(6:17)

금속 시험자(6:27-30), 의사(8:11, 21-22)

장거리 달리기 선수(12:5), 목자(13:17, 20-21; 17:16, 23)

문제를 일으키는 자(15:10, 15-17)

2. 그의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다(1:2-3)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어렵다. 그런데 특별히 더 어려운 시대가 있다. 예레미야 시대, 국가가 망하는 시대

1. 당시 유다는 순종이 아니라 반역함

예레미야는 므낫세 당시 출생, 가장 악한 왕, 12살에 왕이 되어 55년 통치(왕하21:1)

그 뒤 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로(2년 동안)

2. 회개가 아니라 개혁

아몬의 부하들이 그를 암살함, 요시야 통치(31년), BC 609년에 죽음

요시야는 전심을 다해 많은 개혁, 그러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음 reformation, repentance

3.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통치, 백성들 곧바로 우상 숭배

파라오노고, 그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잠시 통치, 결국 시드기야 통치
그런데 시드기야는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잔머리를 굴림

예레미야는 울면서 신실하게 40년 동안 선포,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

3. 그는 부르심을 두고 의심하였다(4-10)

자기 앞의 일, 백성의 사악함, 자기의 무능력(연약함)

나는 책임자가 아니다. 말을 못한다. 경험이 없다(6)

대언자의 직무는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모세 출4:10 말에 능하지 못하다.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다.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전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4-5)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세웠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불평한다(렘20:14-18).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세우신다.

우리도 다 같은 처지에 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셨다.

개인적인 구원 등 아니다. 그의 소명, 그러나 그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하신다.

신약 시대 바울도 그렇게 하신다(갈1:15).

대언자의 사역은 평탄한 사역이 아니다. 위험한 일이다. 힘든 일이다.

대언자: 기존 성경에서 번역이 잘못된 단어, prophet은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닌 대언자이다(7, 9절).

구약시대 아벨부터 대언자, 신약시대에도 초기에 대언자들이 있었다. 고전14장도 대언

이제는 더 이상 직통으로 말씀을 받아 전하는 대언자는 없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전달해 주는 의미의 대언자만 있을 뿐이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설명해 주고 전달해 주는 대언자라 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보호하심(6-8)

1.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2.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 3.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보호의 약속(8)

3.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한다(9-10)

하나님의 말씀: 1. 우주 창조, 2. 우주 유지(히1:3), 3. 땅에서의 일 말씀으로 수행(사55:10-11)
렘24:29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가 줄어들

프로그램과 음악, 안 된다.

4. 그의 메시지는 위험하다(11-19)

대언자들의 메시지: 1. 과거의 죄, 2. 현재의 책임, 3. 미래의 소망

예레미야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그의 말을 들은 사라들은 그를 가리켜 배반자라고 하였다. 옥에 가두었다. 죽이려 하였다.

이렇게 그의 메시지는 위험하였다.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

1. 아몬드 나무(11-12), 1월에 꽃을 피운다. 봄이 오는 것을 미리 알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의미함. 유다: 간음하는 여인,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2. 끊는 술(13-16), 다가오는 심판

당시 유다는 하나님 대신 이집트, 아시리아 의존하려 함, 그러나 바빌론이 일어나고 있음, 이 나를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당함, 가장 큰 죄 우상숭배

3. 도시, 기둥, 성벽(17-19),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명이 어렵고 시대가 힘들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장 인기 없는 대언자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예수님 같다고 하였다. 놀라운 은혜

결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해야 할 일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1) 악한 것은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해야 한다. (2) 좋은 것은 세우고 심어야 한다.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 한국의 어려운 상황, 기독교의 타락, 불신, 불순종, 도덕 불감증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교회, 바른 가정, 바른 사회(통일)

말씀으로 부술 것을 부수고 세울 것을 세워야 한다(9-10).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행한다.

예레미야 마른 유다 백성의 반역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성경말씀: 렘2-6

약 10번에 걸쳐 예레미야 맥잡기를 하려고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책

백성의 반역죄를 드러냄(2)

1장에서 예레미야는 대언자가 되기를 주저하지만 2장부터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예레미야의 대언: 그림과도 같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 2장에서는 그는 10개의 그림을 그린다.

1. 신실하지 않은 아내(1-8)

시대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출19-20), 부부 관계(2), 그러나 반역죄를 지었다(31:32).

유다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간음으로 표현됨, 호세아를 보라

광야, 가나안 정복 초기 그래도 말을 들음(2-3절),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뒤 사사기를 보면 우상숭배 인조 신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였다(7-8).

2. 깨진 물 저장고(9-13),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 보라(10). 자기 신을 바꾼 민족이 있느냐?(11)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하였다. 두 가지 죄악(13), 이스라엘에서 물은 대단히 중요함. 그러나 그들은 생수의 샘을 버리고 깨진 물 저장고를 봤다(13)

3. 노략당한 종(14-19),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함, 그런데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감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따라가다가 결국 속국이 되고 맙.

놉과 다브네스: 이집트의 도시들

주님이 주는 순수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나일 강과 유프라테스의 물을 마시게 됨(18)

19절이 요약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백성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두어 심판하는 것

4. 완고한 짐승(20), 멍에에서 풀려난 짐승

5. 부패한 포도나무(21), 이스라엘은 종종 포도나무로 비유됨, 사5장 등, 변질된 초목이 됨(21)

6. 더러운 몸(22), 마음의 문제라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해도 더러움을 지울 수 없다.

종교 행의, 의식 No good!

마음이 문제다. 예레미야는 마음을 강조한다. 60회 정도(17:9)

7. 광야의 짐승(23-25), 자기들이 더럽지 않다고 주장해도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발정기의 암나귀가 짝을 찾는 것같이 그들은 정신없이 이방 신을 따라다닌다.

그런데 죄를 너무 지어서 구원받을 희망조차 없다(25). 이방 신만 따르겠다.

8. 수치를 당하는 도둑(26-28),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걸리면 자기의 무죄 주장(26), 그러나 명백한 증거,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함,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음

9. 교정할 수 없는 아이들(30-35), 죄로 인해 징계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신이 보여 준 사랑을 말해 준다(31).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잊고(32) 악한 짓을 한다(33-35).

신명기의 주제: 과거를 기억하라. 우리의 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바빌론 포로생활 전까지 그래도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함

10. 전쟁 포로(36-37)

유다는 살기 위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동맹, 그러나 그들은 유다를 실망하게 만들

37절은 죄수의 모습

회개하라(3-4)

이런 상태의 유다가 회복될 수 있을까? 회개하면 된다.

돌아서라(3:1, 7, 12, 22, 4:1), backsliding 타락한(3:6, 8, 11, 12, 14, 22)

여기서도 유다의 상태를 4개의 이미지로 표현함

1. 신실하지 못한 아내(3:1-10, 20)

2:1-2에서 사용한 이미지로 다시 돌아옴

이번에는 이혼 문제, 신24:1-4, 남자 이혼 가능, 그러나 다시 결혼 불가능(1)
 유다 백성은 할 수 있는 대로 간음을 범함, 보통 창녀보다 더 많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라고 하신다(1).
 심지어 기근을 보내서 주를 찾게 만들(3-5),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음
 북왕국 이스라엘(6), 아시리아 점령(주전 721), 그런데도 유다는 깨닫지 못함(7)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혼(8), 그 뒤 북왕국은 회복되지 못함
 요시아 당시 개혁, 그러나 겉으로만 함

2. 약속(3:11-13)

이미 흠어진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다. 용서하겠노라고.

3:14-19는 천년 왕국의 모습(17-18)

유대인들의 놀람(16), 언약궤가 사라진다.

이들은 언약궤, 성전, 제사를 신뢰함

그러나 성전 등이 필요치 않고 새 언약이 세워질 때가 온다(요4).

3. 병을 앓는 환자(20-25)

성경에서 병은 죄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었다.

세균 감염이 피 속으로 들어가듯이 죄는 사람의 내부로 들어간다. 둘 다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은 타락의 증상들이 아니라 타락 자체를 고쳐 주려 하신다.

그런데 거짓 대언자들은 증상만 고쳐 주고 평안하다고 말한다.

좋은 의사: 확실히 병명을 말해 주고 근본 치료

유대인들: 구원이 우상들로부터 온다는 착각

3. 약속(3:11-13)

이미 흠어진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다. 용서하겠노라고.

3:14-19는 천년 왕국의 모습(17-18)

유대인들의 놀람(16), 언약궤가 사라진다.

이들은 언약궤, 성전, 제사를 신뢰함

그러나 성전 등이 필요치 않고 새 언약이 세워질 때가 온다(요4).

4. 갈지 않은 땅(4:1-3)

백성의 문제: 부정직, 올바른 말을 쓰지만 진짜로 그것을 믿지는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상들에게도 한다.

진리와 공의와 정의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방치해 둔 밭과 같다. 잡초들이 무성하다(3). 그것을 갈아야 한다.

5. 할례받지 않은 마음(4)

유대인 아이 여드레 되는 날, 할례, 이름, 언약 백성

유대인들: 우리는 할례 백성, 구원 보장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다(신10:16)

침례, 주의 만찬, 주일성수, 십일조 등, 구원 보장하지 않는다.

6. 형벌(5-18)

북쪽 군대의 침입 예고(1:14), 4:7의 사자처럼, 11-13의 건조한 모래 폭풍처럼

그런데 유다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거짓 대언자들 때문이다.

파수꾼의 역할: 경고 나팔 소리, 이것이 없으므로 패망하게 됨

7. 고통(19-31)

예레미야는 백성들로 인한 고통을 잘 표현함(19), 목사들의 심정

공적 자리: 담대하게, 사적 자리: 고통스럽게

그는 예언의 눈을 가지고 바빌론 사람들의 침입을 바라본다(23-29).

말 그대로 황폐함이 넘친다(23).

창조 시, 하늘과 땅, 6일 동안 채워 넣으심(창1:2), 이런 것은 재창조 구절이 아니다.

바빌론 사람들로 인한 황폐함(29), 엄청난 고통(31)

그런데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30-31).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5)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백성들에게) 의로운 자를 찾아보라고 하신다.

예레미야에는 10개 정도의 행동 설교가 있다. 첫 번째 것

1. 조사하라(1-6),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1)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창18:22-23).

기준: 공의를 집행하고 진리를 구하느냐?(1)

백성 가운데 아무도 없다(3). 아마도 종교 교육을 받지 않아서(4)

그래서 그는 제사장 등에게 간다(5). 그런데 그들 역시 멩에를 벗어버리고 율법을 떠났다(5).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 침략자들 침공 허락(6)

2. 정죄(7-9), 감사가 없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느냐?(7) 내가 형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9)

내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었다(7). 그런데 결과는 간음(8)

가나안 족속 등의 이교도들 우상 숭배, 추악하였다. 신전 창녀

바알: 비의 신, 풍요의 신,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자 바알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이라고 하며 거절함(13)

그 결과 포도원에 황폐함이 생김(10-11). 이교도 민족으로 인해(15)

하나님: 내 말이 불이 되어 사를 것이다(5:14)

이런 상황 속에서 대언자들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을 대언함(18)

실제로 70년 뒤 스룹바벨 등 돌아옴, 회복함

3. 그들의 현실을 선포하라(20-31).

하나님이 하신 일(22)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선포하라고 하심(23).

부자들의 악행(26-28)

그러나 백성은 화를 내며 대언을 듣기 싫어했다. 그는 그들을 거기서 빼내지 못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작당하여 하나님을 대적함(30-31)

하나님의 심판(6)

바빌론의 침공, 유다의 패망

1. 하나님의 전쟁 선포(1-5)

전쟁 정보: 1. 파수꾼, 2. 나팔 소리, 3. 봉화

베냐민의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움(예루살렘 북쪽 5km)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라고 목소리를 냄(1)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여인(2), 그러나 모든 아름다움을 잃고 과부가 된다(애1:1).

외부의 목자들이 쳐들어온다(3)

하나님은 바빌론 군사들에게 계락을 알려주신다. 정오에 공격하라(4).

2. 하나님의 공격 지휘(6-15)

나무를 베어 성을 대적할 보루를 만들어라(6).

예루살렘은 더러운 물을 쏟아내는 샘(7), 형벌을 받아야 한다.

바빌론 사람들이 정밀하게 공격하게 함(9)

거짓 대언자들(13-14)

3. 하나님이 판결문을 내신다(16-23). 16-17, 좋은 길 그들 No!

하나님은 이방 세상이 증인 되라고 하신다(18-19)

그런데 아무도 대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19).

종교 행위가 아니다(20).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21). 북쪽에서 침략자들이 온다(22),

4. 그 결과(24-30)

유다는 아기를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을 겪는다(24-26). 모든 곳이 아프다(26).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거부되었다(30).

이런 악한 일이 이 땅에 생기지 않도록 교회와 목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예레미야 33 유다 백성의 네 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하나님의 심판 성경말씀: 렘7-10

예레미야, 21세기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책

예레미야 당시 시대가 급변한다. 특히 요시야 사후

파라노느고에 의해 살해됨, 여호아아스 즉위 3개월, 이집트 폐위, 엘리아김 즉위, 이름 여호아김
결국 므깃도에서 젊은 나이의 요시야가 죽은 것이 유다에게는 가장 큰 타격, 8세, 31년 통치
유다는 그의 죽음을 회개의 기회로 잡지 못함

여호아아스 3개월, 그의 형제 엘리아김(여호야김) 11년 통치, 요시야 이전으로 돌려놓음
우상숭배, 유대인들 여전히 성전 예배, 그러나 우상들을 끌어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 하나
바알, 그모스, 아스다롯 등, 우상숭배가 나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숭배함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위선을 보이는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함, < >

1. 그들의 잘못된 예배(렘7:1-8:3), 2. 거짓 대언자들(8:4-22), 3. 그들의 잘못된 확신(9장),
4. 그들의 거짓 신들(10장)

1. 잘못된 예배(7:1-8:3)

유대인들 1년 3회 예루살렘 방문 성전 예배(신16:16)

수많은 사람들이 모임(7:2),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거의 없다.

대언자는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에 서서 백성에게 4가지를 지적한다(렘1:7).

1. 그들의 예배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1-5).

백성은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음,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기록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함, 7:6,9를 보면 십계명 가운데 적어도 5개를 범함.

거짓 대언자들: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4)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없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다.

예수님은 11절을 인용하신다(마21:13). 성전은 도둑들이 모여서 작당하는 곳
이사야 대언자, 바울 등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적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면서 백성의 죄를 조장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백성은 회개해야만 한다. 죄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만 들어 있지 않다. 저주도 들어 있다(신11:26-30).

이스라엘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죄를 지음

또 하나님의 심판들을 일부러 잊음

실로에 있던 회막에 대한 심판(12),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

북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라(15)

2.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16-20).

하나님은 3번이나 그에게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7:16; 11:4; 14:11).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기도함. 모세도. 그러나 예레미야는 No!

국가의 붕괴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예루살렘 사람들 집에서 우상숭배(7:17-19)

그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를 드림(44:17-19), 여신 숭배, Queen of heaven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피해를 봄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3. 그들의 희생예물이 유익을 주지 못한다(21-26).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구약의 희생물이 소용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22).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다.

마음이 없이 희생물만 드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구약시대 사무엘, 호세아, 미가 등이 동일한 것을 외친다.

시대 산에서의 언약, 선정된 백성,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해야 한다(출19:1-8).

하나님은 그들을 아내로 맞았다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시어 경고하신다(25).

4. 네가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7:27-8:3). 27절을 보라.
도벳(31, 32)의 뜻은 불 피우는 곳(fire place),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다. 여기서 그들은 아이들을 불 속으로 던졌다(사30:33). 요시아 왕은 도벳을 더럽게 하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 그러나 그의 사후 이곳은 다시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장소가 됨
예레미야의 대언: 심판 날이 오면 도벳은 공동묘지, 그러나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수용할 수가 없다(7:32; 8:2).

거짓 대언자들(8:4-22)

성전에 대한 백성의 환상을 부순 뒤 그는 거짓 대언자들을 지적함,

여러 개의 질문, 그러나 핵심은 “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가?”이다.

1. 백성의 하나님 거부는 비합리적이다(4-7)

넘어지면 일어난다. 잘못된 길로 가면 발자취를 보고 돌아선다(4). 그러나 백성은 그리하지 않는다.

백성은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면서 돌진하는 말들과 같다(6). 그러나 백성은 말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한다. 짐승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는가? 새들도 이주하는 때를 안다(7).

2. 백성의 거부는 속임수에 의해 생긴 것이다(8-12).

지혜로운 자들도. 8:9를 보라.

이들은 성전 자랑과 동시에 율법 자랑(8).

성경 말씀 자랑과 실천은 다른 문제이다.

여전히 성경은 베스트셀러, 그러나 서구 문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키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원인: 거짓 대언자들

그들의 특징: 삶이 형편없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다. 처방이 쓸모없다.

그들이 인기를 얻는 요인: 백성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한다

거짓 의사(6:14), 헛된 바람(5:13), 껍데기를 주는 자들(23:28), 이기적인 목자(23:1-4)

하나님은 이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리더들에게 달려 있다. 교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3. 백성의 거부는 심판을 가져온다(13-22).

결국 국가가 망한다.

하나님의 음성: 1. 과수원들이 망가진다(13), 2. 도시들이 무너진다(16), 3.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가

된다(19). 이것은 마치 술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8:14, 9:15). 지진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8:16), 독사의 공격을 받는 것과 같다(17).

백성의 반응: 회개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20절은 속담이나 격언

예레미야는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였다(21).

왜 치유가 안 될까?(22)

3. 잘못된 확신: 언약(9장)

유대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창12:1-3)

그들은 선민이지만 언약을 믿고 의식으로만 하나님께 나가려 하였다.

믿으려 하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믿음과 회개는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하다.

침례자 요한의 회개 선포, 예수님의 회개 선포, 사도들

1. 선민은 죄에 대한 변명 이유가 아니다(1-6).

예레미야는 백성의 상태를 보고 울었다(9:1; 9:18; 13:17; 14:17 등),

현 시대 목사나 성도들 안에서 우는 일이 거의 없다.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다닌다.

현시대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들: 배우, 연예인 코미디언

약4:9-10을 읽어야 한다.

예레미야는 이 비참한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하며 말씀 사역

당시에 가장 귀한 것: 진리(3, 5)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러나 실제로 언약 백성은 더더욱 죄를 지어서은 안 된다(롬6:1-2).

2. 선민이라고 심판이 면제되지 않는다(7-16). 9절

오히려 더 큰 심판이 그들을 기다린다. 많이 준 자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눅12:48).

이들에 대한 심판은 용광로의 열기와 같다(9:7).

도시는 파괴되고 짐승의 거처가 된다. 밭들도 황폐해진다(10-11).

젖과 풀이 흐르는 땅이 피폐하게 된다: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없단 말인가(12)?

3. 선민이라고 영적 이해력이 주어지지 않는다(17-26).

23-24를 보라.

세상은 교육, 권세, 제물을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의 학식, 정치 권세, 군대, GNP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

친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을 사랑하신다(24).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곧 장례식에 가야 하므로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17,18, 20).

죽음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22).

유대인들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중히 여겼다. 이것은 육체에 행하는 것(25)

이런 할례는 결코 마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롬2:25-29).

침례, 주의 만찬, 십일조, 주일 성수, 직분 등에 의존하지 말라.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4. 거짓 신들과 참 하나님(10장)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을 섬김(수24:2-3)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우상들을 섬김, 모세 시내 산, 백성들 금송아지 숭배(출32)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도 짐승으로 대체함

1. 예레미야는 우상들을 조롱함(1-16).

모세의 경고; 이방인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신7:1-11).

그러나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동화됨. 그들의 행위, 의식, 예배, 2절 일월성신 숭배
사실 이교도들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가짜 신들(10:5)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5).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이상으로 귀중히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다. 차, 집, 명예, 학식, 교회 직분 등
나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것 혹은 사람

우상숭배를 벗어나려면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엄, 장엄함에 사로잡혀야 한다.

2. 대언자는 다가올 심판을 미리 보고 애곡한다(17-22).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다(렘7:17). 그래서 그는 안 한다.

그는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는 여전히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한다(10:19).

1. 하나님, 이들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10:24).

2.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들은 패망할 것입니다(10:24).

3. 하나님, 유다를 공격하는 국가들은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25). 바빌론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공물을 베풀지 않음

결론

여기까지가 그가 성전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26장을 보라. 그는 붙잡혀서 사형을 받게 됨
제사장들, 서기관들, 거짓 대언자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함
주께서 그를 구출하심(렘1방의 약속대로)

적용

대한민국의 상황과 동일하다.

교회들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을 외치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레미야 마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성경말씀: 렘11-13

예레미야, 21세기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책, 40년 간 말씀 선포,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사역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는 혼자 걸으며 하나님 편에 섰다.

사역 초기 왕은 요시아(렘1:3), 요시아 8세 즉위, 통치 제18년 성전 보수, 율법 책 발견(왕하22),
우상 척결(23장), 그러나 백성은 겉으로만 하는 체 하고 실제로는 이전처럼 살았다.

백성들은 집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 11-13장에서 대언자는 백성이 주께로 돌아설 것을 촉구함

1.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11:1-8)

요시아 왕과 백성들 공적으로 그분의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함(왕하23:3). 요시아는 진지하였다.

백성은 그저 전체적인 여론을 따라갔을 뿐이다.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 1. 아브라함 언약(창12:1-3): 땅, 민족, 복과 저주, 온 세상 모든 가족들의

복의 근원, 이삭(창26:1-5)과 야곱(창35:1-15),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축복의 근거

2. 시내 산에서 다른 언약(출19-20), 19:5, 순종하기로 하였으나 곧바로 불순종(32장)

3.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야에서의 언약, 신명기

여기서는 요시아 시대의 언약(렘11:2)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러나 그 땅의 소유와 땅으로 인한 행복은 순종에서 온다.

복과 저주(신27-28; 수8:30-35)

이집트는 속박의 땅, 용광로(렘11:4),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11:5)

그런데 백성은 이집트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한다.

대한민국 70년이 지난 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돌아가려 한다.

요시아 시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거리를 두루 다니면서 자신의 언약의 조건을 알려주라고 하신다(6).

하나님과 대언자는 백성의 마음(불순종)을 안다.

1. 에스겔의 기록(겔14:3), 사람의 아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2. 이사야의 예언: 위선적 예배(사1:10), 많은 예물, 그러나 마음이 거기에 없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지치고 이들은 타국인들에 의해 소멸됨(사1:19-20).

하나님은 대언자에게 언약 안에 있는 복과 저주를 백성에게 알려주라고 하신다(8).

하나님의 축복이 1차적인 백성의 순종의 동기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마치 아이들을 다루듯이

대언자는 주님의 말대로 될 것을 고백함(11:5)

2.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음모(11:9-12:6)

하나님은 대언자에게 그 땅에서 일어나는 2가지 음모를 보여 주심

1. 요시아 왕의 개혁을 반대하며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 사람들의 음모(11:9-17)

2. 예레미야의 고향에서 그를 죽이려는 음모(11:18-12:6)

이것들로 인해 예레미야는 믿음에 중대한 도전을 받는다.

1. 왕에 대한 음모(11:9-17), 9절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몰래 대적하며 요시아의 개혁에 물을 끼얹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백성은 언약을 깨고 거짓 신들을 섬기려 한다.

우리 경배의 대상과 방법은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예배는 우리의 사람 전체를 평가한다.

성도의 삶은 그의 예배와 비례한다. 예배가 부패하면 삶과 사람이 부패한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백성이 지키면 복을 주실 것 약속, 그러나 백성은 이방 신들을 선택하였다.

예배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과를 가져온다.

백성은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설마설마 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언약, 제사장들, 율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버리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이든 심판이든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 결과 재난이 그 땅에 닥치게 되었다(11). 아무도 바꿀 수 없다.

백성이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어도 그들이 도울 수 없다(12).

하나님께 돌아서도 하나님은 들으려하지 아니하신다(11).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두 번째 말씀하신다(11:14; 7:16; 14:11).

그들의 신은 도시 수만큼이나 된다(13). 예루살렘 거리만큼 제단들이 있다(13).

그러나 아무것도 그들을 구출할 수 없다.

그들에 대한 상징: 1. 성전 안의 거짓 예배자(11:15), 큰 소동 속의 나무(16-17)

그들은 성전에서 헛되어 예배를 드렸다. 제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지 못한다(15).

제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악한 일(15)

예배가 사악함이 되면 백성은 죄 짓기를 기뻐한다(15). 그 결과 소망이 사라진다.

성경에서 나무는 국가를 예표한다. 렘11:16-17,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롬11). 열매와 기름

유다는 자신을 번영하는 올리브나무로 여김,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우를 가져오심, 모든 것이 부러짐
최상의 선이 부패하면 가장 큰 죄가 된다.

유다의 경우 최상의 선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부패하였다.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듦, 대언자들을 핍박함, 언약을 거부함. 그분의 이름에 누를 끼침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다.

우리와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의 국가가 망하기 전의 상태

불신자가 우리 예배에 오면 어떤 감정을 품을 것인가? 록 뮤직 경배와 찬양, 신사도 집회 등

2. 예레미야에 대한 음모(18-23)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거부, 그 결과 대언자를 죽이려 함(21)

대언자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21)의 제사장들은 조금 낫지 않을까? 아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였다. 1. 그의 메시지가 마음을 찌르므로

2. 그들은 그의 대언들이 유다 국가에 해롭다고 생각하였다.

3. 예레미야: 바빌론의 임박한 침공, 반면에 그들은 화평을 외침

예레미야는 바빌론 편, 다른 자들은 이집트 편

즉 대언자는 모든 면에서 그들과 엇박자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있기 전까지 그는 알지 못하였다(18).

알고 나서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양같이 되었다(11:19).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다(11:19-20; 12:1-4; 15:10-17; 17:12-18; 18:20-23; 20:7-18). 그는 공적으로는 강하였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였다.

3. 신학적인 위기(12:1-6)

하나님이 이 두 번의 음모를 해결하시자 그는 신학적인 위기에 빠졌다.

1. 왜 악한 자들이 번영할까?(1), 욥 12, 21, 시편 37, 49, 73, 하박국

하나님 말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도자들의 부패, 죄 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의 기근, 식물들 고사, 짐승들 죽음(4)

그런데 악한 지도자들은 유유자적, 남의 것 탈취하여 잘 삶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님께 묻는다(12:1)

왜 그들을 처단하지 않습니까?(3)

하나님의 대답은 그의 기대와 달랐다(5-6).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초점

대언자도 “어떻게 벗어날까?” 고민, 실제로는 “무엇을 얻을까?” 고민해야 함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답으로 살지 않고 약속으로 산다.

2. 세 가지 교훈

1.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다. 달리기와 같다(5).

2.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말과 함께 달린다(6).

3. 우리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점점 더 나아진다.

예레미야는 장애물을 만나면서 점점 더성숙해졌다.

3.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12:7-13:27)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헛된 상상 속에서 살고 있다. 8가지 이미지

1. 하나님께 거부당한 자들(7-17),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상속 유업 백성, 가나안은 그들의 상속 유업 땅, 하나님은 이들을 거부하고 바빌론으로 보냄(17), 이 기간에 땅이 회복됨
지도자들, 군대들 그 땅을 폐허로 만들, 결국 70년 포로 생활(25:11-12; 29:10)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회복됨(15)

2. 훼손된 띠(13:1-11), 액션 설교, 띠는 몸에 붙은 물건, 유다는 하나님의 띠(11)
그러나 우상들로 인해 더러워짐

3. 휘청거리는 술주정뱅이(12-14). 12절을 보라. 술 부대가 술로 다 찰 것이다. 다 주정뱅이가 된다.

4. 넘어지는 여행자(15-16), 대언자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은 듣지 않음(15).
지도도 없이 여행하는 여행자 같다.

5. 포로가 된 양 떼(17-20), 포로가 된 양들을 보고 대언자는 눈물을 흘림, 목자들이 양들을 버림,
말씀의 꼴을 먹이지 않음

6. 산고를 겪는 여인(21), 그들이 의지하려는 자들이 와서 오히려 그들을 치리함

7. 모욕을 당하는 창녀(22-23, 26-27) 모세의 율법 창녀 금지(레19:29 등)
창녀가 몸이 벗겨지면 큰 창피

23절: 유명한 말씀

8. 날리는 겨(24-25), 알곡이 아니라 겨(지푸라기)
돌아서야 한다(27)

결론

하나님과 대언자는 인내하며 참고 있다.

대언자는 묵묵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말씀을 지키며 살기가 힘들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가?

우리도 악을 버리고 주님께 속히 돌아가야 한다.

벧후3:9,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레미야 15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성경말씀: 렘14-17

예레미야, 40년 간 말씀 선포, 심판을 선포함, 인기 없는 메시지,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사역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는 혼자 걸으며 하나님 편에 섰다.

개인적으로 백성의 죄들로 인한 고통을 당했다. 주께서 당하게 하시는 일들로 인해 놀란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한다.

오늘 4개의 메시지와 중간 중간에 나오는 그의 기도를 살펴보고 한다.

1. 가뭄에 대한 메시지(렘14)

가나안 땅은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와 달리 농사를 지으려면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신11:10-12). 백성의 순종, 비, 불순종 가뭄(레26:18-20)

유다의 죄들로 인해 그 당시 여러 차례 가뭄(렘3:3; 5:24; 12:4; 23:10)

1. 땅이 곤궁하게 됨(1-6)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도는 곳에 고통, 가뭄으로 인해

암사슴이 새끼들을 버릴 정도가 됨(5). 들나귀도 마찬가지로 고통(6)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2. 백성의 탄원(7-12)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 기도(7), 그러나 회개가 없이 불성실한 기도

주님이 반응하지 않음(8, 9)

결국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다(8). 하나님의 명에 그러나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바닥났다.

비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심판을 보내신다(14:10).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다(14:11; 7:16; 11:14).

그들의 금식, 기도, 희생예물 소용없다(12).

바빌론 사람들의 칼이 닳친다(12), 칼, 기근, 역병

3. 대언자의 항변(13-16)

이게 백성의 잘못입니까? 거짓 대언자들의 문제가 아닙니까?(14)

하나님의 말씀: 맞는다. 그러나 백성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백성의 책임: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음을 제대로 분별해서 알아야 한다.

두 종류의 시험

1. 그들의 예언이 맞느냐?(신18:20-22)

2.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법과 맞느냐?(13:1-18)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자는 거짓 대언자

사8:20,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4. 대언자의 고통과 기도(17-22)

대언자는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느낌. 그래서 운다(17).

특히 그는 예언으로 보는 것을 통해 그 땅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고 울(18).

그리고 주님께 기도한다(19 이하).

주님만 바라봅니다(22)

하나님은 종종 개인, 교회, 국가에 재난을 보내신다. 회개하라고

이 땅의 어려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 교만

다가오는 포로 생활에 대한 메시지(15)

모세의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게 함.

불순종은 포로 생활(신28:63-68)

여호수아와 당시 장로들 사망, 백성은 곧바로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라감(삿2:7-15)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심, 그 뒤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

1.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1-9)

누가 무어라고 간구하든지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하였다.

모세와 사무엘: 위기의 시대 하나님께 간구함

출32; 삼상7:1; 12 등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음(15:1)

백서의 네 가지 선택지: 질병으로 인한 죽음, 전쟁, 굶어죽음, 바빌론 포로 생활(15:21)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 죽임 당한 자들: 개, 새의 밥

밝은 미래는 아니지만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미워하는 대상(15:4)
땅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므낫세 왕, 55년 통치, 유다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함

이것은 알곡과 겨를 분리하는 것과 같다(7).

여인들은 과부가 된다. 자식들을르 잃는다.

하나님은 결코 이들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겔18:23, 32).

백성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 결국 한계가 온다.

2. 대언자의 반응(10-21)

예레미야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울 이유가 있다(10).

왜 내 아들이 원수 취급을 받느냐? 모두가 그를 미워함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지만(11)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면제하지는 않으셨다.

유다는 지금 지는 전쟁을 하려고 한다(12). 아무도 북쪽의 느부갓네살을 당해 낼 수 없다.

렘15:15-18은 대언자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하나님이 옹호합니다(16). 그럼에도 백성으로 인한 고통이 내게 있습니다(18)

심지어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다고도 말함(18).

대언자 역시 사람이라 이런 실수가 있다. 그런데 그는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19).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다.

그는 대언자 직무를 포기하려고 한다(19).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신다(20; 1:18-19).

그는 믿음으로 걸어야 했다. 자기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보호를 약속하셨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힘든 일이다. 국가적 책무도 우리에게 있다.

3. 예레미야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메시지(16)

주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종종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심. 이사야 8, 20장 등

액션 설교도 하게 하심(에스겔 등)

1.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금하심(1-9), 세 가지의 정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심

1. 결혼하는 것, 2.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는 것, 3. 잔치에 참석하는 것

유대인 남자들 20세 정도에 결혼함,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는 자들을 향해 랍비들은 저주를 선포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심,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그에게 나음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상징, 아들딸들이 죽게 된다(3-4).

예레미야는 장례식장(5-7), 결혼식장(8-9)에도 가지 못함

1. 하나님이 화평을 제거하신다(16:5). 2. 고통이 너무나 커서 백성이 표현할 수가 없다. 3. 너무나 많은 시체들, 살아남은 자들이 너무 적음, 4. 매장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다. 날짐승, 짐승의 밥(4)

그러므로 결혼식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와중에 무슨 결혼?

2. 예레미야의 설명(10-13, 16-18)

백성의 이상한 질문: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이런 심판을 보내시느냐?(16:10)

그들은 언약의 조건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았다. 너무나도 죄에 익숙해 있었다. 양심이 굳어 버렸다. 잘못된 신학: 성전,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안 망한다.

예레미야의 설명: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너희도 동일하게 짓는다(11-12).

과거의 심판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시리아의 북 왕국 점령을 보라. 깨달아야 하지 않느냐?

예레미야는 고기 잡는 것, 사냥하는 것 등의 예를 든다(16:16-18)

예레미야의 위로(14-15): 이 와중에도 그는 백성에게 위로(소망)의 메시지를 준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집트 탈출보다 더 많은 자들이 돌아온다(사11:10-13).

포로 생활은 70년이다(25장)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 확증(19-21)

유대인들의 귀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예언함(19, 사2:1-5). 이방인들 우상 숭배 죄 고백

4. 유다의 죄들에 대한 메시지(17)

대언자는 유다 백성의 6가지 죄를 지적한다. 그것들이 확실하게 기록됨(1)

1. 우상숭배(1-4): 이방인들의 우상들, 작은 숲들(2), 산당들(high places, 3)

신약시대에도 동일한 경고(요일5:21)

돈, 소유물, 명예, 권력, 성공, 쾌락, 성취

2. 불신(5-10), 지도자들 이방 나라들 의지, 저주받은 자들(5)

사막의 식물과 강가의 식물 차이(6, 8)

불신과 믿음의 차

가장 큰 문제: 인간의 마음(9), 잘 속인다. 고칠 수 없다.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아신다(10).

이스라엘은 불신의 역사: 광야 40년, 재판관들의 시대, 왕국 시대 마찬가지

3. 탐욕(11) 이 어려운 시점에 부자들은 약한 자들 착취, 법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4. 주님을 버림(12-13)

5.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함(14-18), 대언자의 기도, 구출해 주십시오(16, 17).

6. 안식일을 더럽힘(19-27):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상징(출16:29; 20:8-11) 등, 토요일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

결론

대언자는 용기 있게 신실하게 말씀을 전달한다. 주님께 간구한다. 백성의 죄로 인해 운다. 그러나 백성은 점점 더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의 사역은 실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대성공이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국가를 생각한다. 국가의 앞날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자는 목사가 아니다. 그런 거짓 대언자들에 의해 이 나라는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나간다.

이대로 두면 망할 수밖에 없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레미야 마다 나라와 민족으로 인한 극도의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예레미야
성경말씀: 렘18-20**

예레미야, 40년 간 말씀 선포, 임박한 심판을 선포함, 인기 없는 메시지,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오늘은 그의 액션 설교,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 말씀을 전하자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핍박한다. 대언자의 최대의 절망, 그래도 그는 다시 일어난다.

1. 위협받는 대언자(렘18)

18-20장의 사건들은 아마 여호야김 시대, 그는 대언자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책을 찢어 태운 사람이다
(36:21). 그의 아버지 요시아와 달리 여호야김은 주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다. 11년 통치 기간에
그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1. 하나님의 주권(1-17)

당시, 중동에서 토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산업, 대언자는 과거에 여러 차례 토기장이의 집을 지났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특별 메시지(18:2), 이 메시지 선포 뒤에 그는 차꼬에 갇힘
그는 지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있다(3-4).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이상한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토기장이, 진흙, 저항, 토기장이가 보기 좋은 대로 다른 그릇 제조(4)

2. 해석(5-10)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하듯 하나님도 국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6). 마구잡이로 처리하신다
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그분의 속성에 따라 항상 기록하고 선택하고 지혜롭다. 우리가
조언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롬11:33-34; 9:20-21
국가들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 가능하다(7-10).

심판하려고 작정함, 백성 회개,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지 않음(8)

니느웨, 요나 3장

축복하려고 함, 백성이 죄를 지음, 하나님의 심판(9-10)

사실 이스라엘의 선택,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역사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여 줌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약속들에 의거하여 산다.

신29:29,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4:35, 37

3. 적용(11-17)

국가는 백성들의 모임, 개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12).

인간은 흙에서 나옴(창2:7), 연약한 구조 가운데서 삶(욥4:19), 좀 앞에서 무너질 자들
진흙과 인간의 차이, 인간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기 위해 부모, 형제, 선생, 목사, 저자 등,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는 그들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 내가 유다 왕국을 대적할 악을 만든다(11).

백성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킨다. 그렇지 않으면 악을 집행한다.

참으로 아이러니: 그들은 참 신을 버리고 우상들을 택하였다(13, 14).

복 대신 저주를 택하였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들은 복을 원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들어섬(15).

인내하는 토기장이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저항해도 참으시며 우리를 잘 빚으려 하신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삶,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등

실패해도 우리는 회개하고 전진해야 한다.

4. 원수의 음모(18)

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듣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주권 등 싫어한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그래서 메시지를 가져다주는 대언자를 죽이려 한다.

예레미야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18). 제사장, 서기관 매우 많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렘11:18-23; 12:6; 15:15 등

또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그를 없애려 한다. 모욕, 비방

신실한 종들도 사람이기에 백성의 반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배운다.

요16:33; 15:18

5. 대언자의 고통(19-23)

예레미야의 탄식, 이번이 다섯 번째(11:18-23; 12:1-5; 15:10-18; 17:14-18; 20:7-18) 내 말을 들어주소서(19-20).

반대자들의 처벌에 대한 호소(21-23)

개인적인 감정 이 아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야기하고 있다.

엘리아처럼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약5:17)

지도자들의 배신, 백성의 불순종, 엄청난 고통

거룩한 분노가 있다. 공의에 따른 분노

핍박받는 대언자(19:1-20:6)

또 다른 액션 설교. 결과, 매를 맞고 차꼬에 갇힘

1. 예레미야의 설교(1-9)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병 하나를 가지고 토기장이 집 다시 방문(1)

이번에는 구경꾼이 아니라 손님으로

장로들도 데리고 감, 이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임박한 심판을 보여 주기 위해 데리고 감

동문(2): 토기장이들의 문, 토기를 버리는 곳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쓰레기장)를 바라본다.

예레미야는 이 문을 설교단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선포한다(19:3).

이 골짜기는 우상 숭배의 근원(19:4-5), 요시아는 쓰레기장으로 만듦(왕하23:10), 또 그가 힌놈의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게 하여 아무도 몰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니라.

도벳(6): 불구덩이, 아이들이 불속을 지나는 장소

바빌론 침략 이후 살육 골짜기(6), 심지어 부모들이 아이들을 잡아먹음

2. 대언자의 심판 선포(10-15)

심판: 19:7-9을 보라. 심지어 살을 먹음(9)

이를 확증하기 위해 토기를 깬다(10-11).

유다 백성은 더 이상 징계나 기도로 고칠 수 없다.

너무나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므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중동의 풍습, 왕이나 장군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토기를 깨뜨림

시2편 메시아 시편에도 이런 것이 사용됨(시2:9),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이 말을 들은 장로들의 표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 이집트 전략,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들음

이런 상황에서 대언자는 완전히 다른 말(임박한 심판)을 함

그리고는 다시 성전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함(14-15)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대언자의 모습

국가와 민족이 너무 심하게 죄를 지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할 수 없는 일도 생길 수 있는가?
있다. 진흙이 마르지 않은 상태면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굳으면 더는 토기를 만들 수 없다. 심판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대응책

1. 북왕국 거부, 아시리아
2. 남왕국 거부, 바빌론
3. 신약 시대 메시아 거부, 40년 뒤 로마 침략, 전 세계로 흩어짐
4. 대한민국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거짓 목사들, 교회들, 교리들

3. 대언자의 고통(1-6)

임멜의 아들 바스홀 등장(1), 예레미야 핍박

대자사장의 심복, 성전 직무 수행자, 예레미야의 말을 싫어함

그래서 그를 붙잡아 때리고 차꼬에 가둠, 눈에 잘 띄는 장소(2), 베나민의 높은 문
매 맞고 차꼬에 간혀서 밤을 보내려면 엄청난 고통(2)

유다의 지도자들: 비방, 모욕, 투옥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만남, 특별 메시지를 주심

바스홀의 새 이름, 마골밋사립(3), 모든 곳에서 두려움(공포)이 되는 사람

20:4, 바빌론 왕을 처음으로 가리킴, 이전 북쪽에서 침입한다, 어떤 민족인지 말하지 않음
바스홀과 그의 가족 합당한 심판을 받음(6)

자기 땅 밖에서 묻히는 것은 큰 수치(6), 이교도들의 땅은 부정하다.

바빌론의 세 번 침략, BC 606(여호야김), BC 597(여고니야), BC 586(시드기야)

3. 낙담하는 대언자 예레미야(20:7-18)

대언자의 절망의 탄식, 고통과 기쁨, 기도와 절망, 찬양과 당황함이 혼합됨

대언자는 감정을 조절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그의 마음속 깊은 감정이 배여 있다. 세 가지 메시지

1. 그의 부르심(7-9):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좌절을 겪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께 나와서 고해야 한다.

예레미야: 나를 속이셨습니다(7).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딤후1:2).

그러나 너무 고통이 심하자 혹시 하나님이 자기를 유인하지 않으셨나 하고 생각하게 됨
나를 억누르지 않았나(20:7)?

이것은 조금 심한 말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렘1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속이지 않으셨다. 평범하게 이야기하신다.

그가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다.

그의 사역은 국가를 위해 중요하다.

동시에 그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 역시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는 그만 두려 하였다(9).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뼈 속에 간힌 불 같아서

그에게는 말해야 할 무언가가 가슴 깊이 있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2. 매일 겪는 고통(10-13)

자기의 소명 문제 해결, 그 뒤 그는 자기 주변의 원수들을 보게 됨

믿음은 문제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잘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깨달음(10)

3. 깊은 절망(14-18)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뢴 뒤에 기뻐해야 했지만(13) 그는 곧바로 절망의 한숨을 내쉰다.
기쁨과 절망이 교차한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함(14), 출생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저주받기를 바람(15)

결론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일이 꼬일 때 이런 절망의 한숨이 나온다.

낙심되고 어려움이 겹칠 때, 그만 두고 싶을 때 감정,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를
보아야 한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대한민국을 보라.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레미야 ㄹ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악한 왕들과 거짓 목자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경고

성경말씀: 렘21-24

예레미야, 40년 간 말씀 선포, 임박한 심판을 선포함, 인기 없는 메시지, 20:8, 폭력과 노략,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사역을 그만두려고 한다(20:9). 그러나 주의 말씀의 부담, 재개
오늘은 유다의 운명, 유다 왕들을 향한 대언, 거짓 목자들과 대언자들의 죄,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비교 및 심판

1.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적하심(21)

유다의 최종 패망, BC 586, 21장은 그 일이 생기기 한두 해 전의 일 묘사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쌌.

대하36:13, 시드기야와 유다는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고 바빌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음. 그 결과 유다는 무서운 심판을 받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도움을 받으려고 바스홀과 스나바를 그에게 보냄(1), 즉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히스기야 시대에서처럼(왕하18-19) 기적적인 도움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려고(아시리아 살만에셀, 산헤립)

그런데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과 다윗 왕조에게 어두움의 메시지를 준다.

1. 시드기야(3-7)

하나님이 오히려 유다의 원수들과 함께 유다를 멸하려 하심(4)

하나님은 유다에게 진노하시고 격노하심(5)

백성은 역병으로 죽는다(6)

결국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은 바빌론 왕에게 넘겨짐(7)

2. 백성(8-10)

바빌론에 대항하는 자는 죽고 항복하는 자는 산다(9). 항복하면 산다는 말은 반역하라는 말로 들린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왜? 유다는 이집트와 함께하기로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닥칠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히12:9).

이것이 어려움이 닥칠 때 성도가 해야 할 일

3. 다윗 왕조(11-14)

결국 다윗 왕조가 멸절되고 만다.

삼하7장, 다윗 왕조, 순종하면 지속, 불순종하면 징계(삼하7:14), 다윗 언약을 보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므로 무조건 하나님이 도시를 지켜 주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고 거짓 확신을 갖지 말라.

2.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의 운명을 드러내어 보여 주심(22:1-23:8)

경건한 요시야 왕 8세부터 31년 통치, 주님을 섬김. 그 뒤 4명의 왕은 모두 사악함

3명은 요시야의 아들, 하나는 그의 손자

여호아하스(살룸), 23세에 석 달 통치, 느고가 이집트로 추방함, 거기서 죽음

여호야김(엘리아김), 25세부터 11년 통치, 예루살렘에서 죽음

여호야긴(고니야, 여고니야), 18세부터 여호야김의 아들, 석 달 통치,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데려감, 거기서 죽음

시드기야, 11년 통치,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봄, 그들이 눈을 뺐, 바빌론으로 끌려가 죽음

예레미야는 네 왕에 대한 진실 선포,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 선포

이 부분 설명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움, 목사의 강해가 참으로 도움이 된다.

1. 시드기야(1-9):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자들을 보냈으나 예레미야는 직접 왕궁에 가서 말을 전함 그는 백향목 집에 거함(7), 그러나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 그저 다윗의 후손이기에

백향목 집에서 왕으로 앉아 있음

2. 여호아하스(살름, 10-12), 요시야의 죽음, 백성에게 슬픔을 가져옴, 에레미야도 애가를 지음.
10절 설명, 그는 이집트에서 돌아오지 못한다. 11-12

3. 여호야김(13-23), 탐욕스러운 자, 정국이 불안한데도 그는 왕궁을 넓혔다(14). 돈도 주지 않고(13).
나라와 백성은 죽어 가는데 왕은 백향목 왕궁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쏟는다(15).

요시야의 통치(15-16), 여호야김의 탐욕(17)

예루살렘 배성의 상태(20-23):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3. 여호야긴(고니야, 24-30): 석달 10일 통치, 어머니 왕비와 함께 바빌론으로 추방됨. 그 역시 사악한
자, 렘22:26은 그의 어머니 역시 악한 일을 함을 보여 줌

왕이 인장 반지와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버림(24-25)

28절 문제: 여호야긴은 적어도 7명의 자녀(대산3:17-18). 그러나 아무도 다윗의 왕좌에 안지 않는
다.

하나님은 그가 마치 자식 없는 자처럼 여기신다(30).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그의 아들들 죽임당함, 시드기야는 바빌론으로 끌려감, 여호야긴이 풀려나기
전에 죽음, 왕하25:27-30, 바빌론 왕 에빌브로다의 석방,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 해

그러므로 여호야긴은 다윗의 왕조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왕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마1:1), 메시아, 다윗의 왕좌에 앉아 통치할 것이다.

마1장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계보

그러나 여호야긴이 그 가족에 있으므로(마1:11) 그 저주로 인해(렘22:24-30) 아무도 다윗의 왕좌를
차지할 수 없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다윗의 왕좌에 앉는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동일하다. 다윗 이후는 다르다. 솔로몬(마1:6-7), 나단(눅3:31, 32)

4. 메시아 왕국(23:1-8)

4-5절을 보라

6절: 이스라엘의 구원

7-8절: 사11:1 이후와 비교하라. 동일한 이야기

즉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에게 위로의 빛을 주신다.

3. 거짓 대언자들의 죄(23:9-40)

유다 패망의 근본 원인: 거짓 대언자(9)

그 결과(10)

이스라엘 대언자들(13)

유다의 대언자들 소돔과 고모라(14)

대언자들 심판(15)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16-17)

헛된 대언(21)

제대로 했으면 백성이 돌아섰을 것이다(22)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먼 곳에 있는 하나님, 초월자(23-24)

거짓말하는 대언자들(25-26)

하나님의 경고(28-29), 쇠망치 hammer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대적함(30-32)

대언자들의 말: 엄청난 부담, burden(330,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특별 계시다, 꿈을 꾸었다
등등

평이하게 말하라(35-36)

그 결과 영원한 수치(40)

하나님 반역하는 백성을 처단하신다(24)

1절: 2차 침공, 1차 BC 606, 2차 597, 3차 586

BC 597년, 바빌론으로 왕과 귀족들을 데려감

두 개의 무화과 바구니가 성전 앞에 있음(1)

좋은 바구니, 나쁜 바구니(2)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자들은 좋은 무화과(5-7)

유다 땅에 있는 자들 나쁜 무화과(8). 즉 이집트와 연합하려는 자들, 온 세상으로 포로가 되어 나간다.

소멸된다(9-10).

결론

유다와 대한민국을 비교하라. 가장 큰 문제: 거짓 대언자 목사, 교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바빌론과 이집트, 미국과 중국, 어디를 택할 것인가?

역사와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데도 반대로 나가면 모두 패망한다.

예레미야 뱀 유다가 살려면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을 섬기라: 대한민국이 살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택하라

성경말씀: 렘25-29

예레미야, 40년 간 말씀 선포, 임박한 심판을 선포함, 인기 없는 메시지,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심지의 사역을 그만두려고 한다(20:9). 그러나 주의 말씀의 부담, 재개
오늘은 < > 국가가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한다.

1. 하나님께서 비밀을 드러내어 보이심(25)

예레미야는 25-26장 말씀을 전달할 때 이미 23년 동안 대언자로 일하였다(25:3; 26:1).

그는 주전 628년경(1:2)부터 대언 시작,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약 40년간 대언
그러므로 지금 대언 사역의 중간쯤, 백성과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꾸준히 선포함, 25장에서 그는 유대인들(1-14)과 이방 민족들에게(15-38) 메시지를 전한다.

1. 유다에 대한 징계(1-14)

여기에서 대언자는 그들이 이전 대언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고 4번이나 말한다(3-4, 7-8).

그 대언자들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예레미야 역시 23년 동안 선포함, 그러나 듣지 않음
백성은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거부함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 심판의 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21:7, 10)

주님은 그를 내 종이라고 하신다(25:9; 27:6; 43:10)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51:20-23)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때로 하나님은 파라오, 느부갓네살, 고레스 같은 이방 왕들을 사용하신다(렘9:17; 사44:28; 45:1).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시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예레미야는 처음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비밀을 알려준다(25:11-14; 29:10;

단9:1-2), 70년의 목적, 땅의 안식(대하36:20-21; 레25:3-5), 거의 500년 동안
그런데 유다만 바빌론에 의해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주변의 모든 이교도 국가들도(25:9), 이들의 명단 25:18-25, 27:3

이들은 이런 저런 식으로 바빌론 대적, 유다를 도우려고 함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 뒤 유다 회복, 그러나 바빌론은 멸망함, 지나친 압제와 학대(25:12-14)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일을 그르침

결국 바빌론은 주전 539년경에 메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함(단5).

2. 이방인 국가들에 대한 심판(15-29)

예레미야는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도 부름을 받았다(1:5).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죄악에 대해 책임이 있다.

심판의 8가지 이미지

1. 진노의 잔(15-29), 진노의 잔은 시편과 대언서 등에 여러 차례 나온다. 계시록에도 나온다.

잔을 마시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요18:11, 예수님의 표현

2. 울부짖는 사자(30, 38)

3. 포도즙틀(30), 이것 역시 진노의 심판 표현(사63:3; 율3:13; 계14:19-20)

4. 고소(31)

5. 회오리바람(32-33)

6. 배설물 쓰레기(33)

7. 깨진 그릇(34)

8. 살육당하는 양 떼(34-38)

그런데 이런 심판은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18). 신약 성경도(벧전4:17),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

2. 대언자가 위험에 빠짐(26)

26장은 7장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성전에서 그는 용기 있게 설교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한 대로 선포한다(1:7).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러나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은 백성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한다.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과 그 도시를 이교도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은 신성모독

더욱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당한 것처럼 다시 당한다는 주장은 신성모독(삼상4)

다윗 언약: 하나님이 도시와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대언자는 반대를 말한다. 신성모독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8)

성전에서의 소동 소식, 통치자 관리들이 나옴(10)

소동하는 무리들의 목소리 청취, 대언자에게 말할 기회를 줌

예레미야의 말

1. 나는 주님이 보내사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였다(26:12,15).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대언자를 죽이는 것이다.

2. 백성은 위험에 빠져 있고 나는 그들을 구하는 중이다(13).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철회하실 것이다.

3. 그들이 나를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다(15). 심판이 가중될 것이다.

관리들

1. 고소 내용이 허위(16), 그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였다.

2. 장로들이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 대언자 케이스를 말한다(17-19, 미1:1, 3:12). 당시 아시리아 사람들의 침략, 히스기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회개하게 하였다.

3.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의 친구가 되어 그를 구해 줌(24), 그는 요시야 왕의 신하, 총독 그달리야의 아버지

우리야 이야기는 조금 이상하다(20-23). 그는 잡혀서 죽었다.

우리야와 예레미야의 차이: 그는 이집트로 도망갔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유다에 남아 있다.

3. 대언자가 멍에를 땀(27-28)

예레미야의 액션 설교

시드기야가 주변 5개국 대표들과 회의를 할 때(3), 유다의 연합 세력, 느부갓네살 대적하려고

1. 멍에의 메시지(1-22), 멍에는 굴복의 상징

먼저 그는 이 국가들의 사절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1-11),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마트한 전략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

왜 멍에를 메고 있는가? 그의 대답(하나님의 말씀): 유다와 주변 국가들은 반드시 멍에를 메야 한다 (5-7). 그러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이들을 바빌론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7-8, 11-12).

그는 이 메시지를 사절단에게 보낸다.

유다에는 거짓 대언자들, 이방 나라에는 점쟁이들과 마술사들,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
나라를 망치는 자들

그 뒤 대언자는 동일한 메시지를 시드기야에게도 줌(27:12-15).

시드기야는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고 조공을 보내지 않음

예레미야의 멩에를 보고 왕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12).

그는 왕에게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뒤 그는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멩에 메시지를 전한다(16-22).

거짓 대언자들의 주장: 성전의 귀중품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올 것이다(16). 대언자: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것들은 고레스 칙령 이후에나 돌아온다(스1-2).

예레미야의 메시지: 바빌론 왕에게 항복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17).

예레미야의 소망의 메시지(22): 70년 포로 생활 이후 하나님이 바빌론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방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2. 멩에를 부숨(1-17)

거짓 대언자 하나냐의 등장,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그를 만남(5)

그의 주장: 하나님이 바빌론 왕의 멩에를 부수셨다. 귀중품들이 2년 내로 돌아올 것이다(2-3).

여고니야와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4).

이 메시지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모순(27:16-22)

실제로 여고니야는 돌아오지 못하고 바빌론에서 죽음(52:31-34)

예레미야의 응답(6)

9절: 신명기 18장 22절

하나냐는 화가 나서 멩에를 꺾음(10-11)

하나님의 말씀(13)

모든 민족들도 쇠 멩에를 메는 같은 운명(14)

하나냐가 죽음(15-17)

4. 대언자가 편지들을 씀(29)

이 장에는 여러 개의 편지

1. 포로들에게(1-14), 2. 바빌론에 있는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15-23)

3. 스마야가 예레미야에 대해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쓴 편지(24-29)

4. 예레미야가 스마야에 대해 포로들에게 쓴 편지(30-32)

1. 포로들에게 준 격려의 편지(1-14)

주전 597년 2차 포로 생활, 그 이후에 대언자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바빌론 땅에서 올바르게 잘 살아야 한다(5-6). 그들은 바빌론에서 율법으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선한 증인으로서 본이 될 것(7)

고국과 성전에서 떨어져 있어도 좋은 유대인 시민이 될 것(7)

1. 소망이 없는 자들(4-6): 포로들은 아무 것도 없다. 집도 자유도 없다.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주님이 해결하시게 하라(4).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2. 거짓 소망 속에 사는 자들(8-9)

거짓 대언자들의 부추김, 곧 돌아갈 것이다. 아마도 2년 내에(8-9). 그러므로 바빌론에 정착할 필요 없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반대를 말한다. 70년을 견뎌야 하니 거기서 아들딸 낳고 정착해야 한다(10).

이유; 70년 지난 뒤에 일부가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인구를 키워야 한다.

포로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화평하게 살아라(7).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3. 참 소망을 가진 자들(10-14)

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다. 꿈이 아니다(10). 하나님이 친히 구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평안의 계획을 세우신다(11).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그분께서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간구한다(12).

징계의 목적: 깨닫고 돌아서게 하려는 것

2. 설명의 글(15-23)

바빌론에 있는 거짓 대언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시드기야 왕이 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어도 이것은 결코 국가가 구출받는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17). 그들은 나쁜 무화과 열매들이다. 심판(18), 이유(19)

바빌론 포로들에게 주는 말,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21), 그들은 저주거리가 된다(22). 그들의 악행(23)

경고의 말(24-32)

바빌론에 있는 또 다른 거짓 대언자 스마야에 대한 말씀(24)

그는 예루살렘 사람들(특히 스바냐를 포함한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라고 말함(26)

그런데 성전의 책임자 스바냐는 예레미야가 그 편지를 읽게 함(9, 21:1).

주님의 말씀, 나는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다(31). 그와 그의 씨를 내가 벌하겠다(32).

결론

오늘의 핵심: 대언자 예레미야의 메시지,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바빌론 왕을 섬겨라. 무려 40년 동안 지금 식으로 말하면 정치 발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에 빠져 있다. 목사나 교회 성도는 정치 발언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

일단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가 100% 이루어진 국가. 헌법에 따라 국교가 없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약은 초점이 영적인 책이다. 구원 하늘나라 부활 휴거 등

구약은 초점이 이 땅에 있다. 국가와 민족과 개인의 역할

롬15:4

예레미야를 오늘 읽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유다는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가

하나님의 말씀: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을 섬겨라. 내가 당분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빌론을 사용한다.

참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들의 싸움, 예레미야는 있는 그대로. 다른 자들: 이집트 섬겨라 혹은 이것은 정치 발언이다.

대한민국도 동일하다. 약소국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징조로 보여 주신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 재산권 박탈, 믿음 생활 불가능

그러므로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런 나라는 이 당에서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다.

1945년 해방도 미국, 1950년 6.25도 미국, 그 이후 수출. 기술도 미국 영토의 아욕이 없다.

한반도가 가장 부흥한 때: 중국을 멀리하고 중국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데 지금 또다시 중국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참된 목사는 예레미야의 이런 말씀들을 강해하면서 미국과 손을 잡아야 산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정치 발언 운운, 중국 운운 혹은 묵묵부답, 다 악한 자들이다.

예레미야 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말씀: 렘30-33

예레미야, 40년 간 말씀 선포, 임박한 심판을 선포함,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을 택해야 한다. 약소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임을 처음 드러낸다. 바빌론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목숨을 잃을 위험, 거짓 대언자들의 부추김을 받은 백성이 그를 죽이려 함

예나 지금이나 거짓 대언자들이 문제다.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어제 저녁 크리스천 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2470>

〈일부 목사들 “가난하고 약한 이 위하는 이재명 후보 지지”〉, 이재명 후보지지 목회자 선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목회자 일동’이 9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 앞에서 ‘가난하고 약한 이를 위해 일하는 이재명 후보 지지 목회자 선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이 발표한 선언문에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현주소는 국민의 불신을 넘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온갖 술수와 반칙을 일삼아가며 오롯이 정파적 이익에 골몰하던 정치공학의 폐해”라며 “우리는 이런 위선적 정치 현실에 종식을 고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으로서의 민주정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행복과 권리를 증진시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과의 약속은 기필코 실행하고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련의 정치 행위들은 여타의 기득권 세력이나 이익집단과의 담합이나 뒷거래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의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국민을 위한 일에는 과감하였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년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탁월한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여러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향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비전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정치가 세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 시점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는 평생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꿈꿔왔고, 예수께서 천명하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복음에 헌신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대동세상’을 꿈꾸며 ‘역강부약’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한 사람의 종교인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그 의무와 권리를 다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지 선언은 개인의 호불호와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며,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희망을 전인하고자 하는 무겁고 엄중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모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공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꿈꿔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역강부약, 대동 세상이 공산주의 개념임을 모르는가?

다 같이 잘사는 유토피아는 성경에 없다.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해서, 이런 것 인간의 힘으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 공산주의자들의 궤변

이런 일에 목사들이 나서야 하는가? 하나님과 기독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척점에 있다.

오늘 < >,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포로 생활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29:11)

30-33, 4장은 구체적인 위로와 안위의 말씀

바빌론 포로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재림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언서의 예언: 1차 바빌론, 2차 주님의 재림

1.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속(30)

예레미야는 잠들어 있는 동안에(31:26) 30:1-31:25 말씀을 받았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단10:9; 슄4:1). 지금은 No!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주제: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가 하나로 연합된 국민으로서 고국에 돌아온다(30:3). 이것은 재림 전에 이루어질 최종 귀환, 그럼에도 바빌론 포로들에게 위로와 격려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데려오실 수 있다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도 할 수 있다(10).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

1. 부서진 명예(4-11), 8절, 그 날(In that day)

재림 전, 하나님이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

그 날 전에 그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는다(7), 마24:21-31, 큰 환난(계6:19)

여인의 진통(렘30:5-6)

9절의 약속은 환난기 이후 메시아가 치리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렘23:5; 33:14-26 등도 비슷하다.

초림 때에는 메시아 거부(눅19:14), 재림 때에는 환영(스12:8-14:21)

2. 상처가 나옴(12-17), 이사야 당시 유다는 병든 나라(사1:5-6), 거짓 대언자들로 인해 상처가 악화됨(10:19; 14:17; 15:18). 상처가 너무 심해서 고칠 수가 없다(12-13).

유다의 동맹국들이 유다를 버림(14)

하나님이 친히 다른 국가들을 사용해서 유다를 치게 했음을 보여 주심(30:14).

아시리아와 바빌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상처들이 치유될 것이다(17).

3. 회오리바람 이후의 고평함(18-24) 23절, 회오리바람, 바빌론 침략을 상징함

말세에 유다의 도시들이 재건될 것을 보여 주심(18)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그들의 통치자 메시아는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21). 대제사장,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는

2. 화해 새로운 백성(31:1-30)

국가는 영토와 도시들 이상이다. 함께 살고 일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장에서 대언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시는 새로운 일들

1. 하나로 연합된 백성(1, 27-30): 솔로몬의 죄들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됨(왕상11-12).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모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1).

유다와 이스라엘이 심겨짐, 하나의 씨, 한 개의 수확물을 낚(27).

대언자의 사역, 부수고 뽑고 건축하고 심는 것(1:1), 지금까지는 주로 전자

그러나 이후로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세우신다(28).

2. 이스라엘의 회복(2-20),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북 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수도는 사마리아(렘 31:4-6, 9, 18, 20), 북 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함, 이방 민족들과 혼혈

유다의 귀환,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음(스4:1-4, 느2:19-20). 예수님 때까지 이어짐(요 4:9),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특유의 예배 제도 확립

렘31:2-22의 약속들은 포로 생활 이후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퍼져 있는 10지파

이들과 유다와 베냐민, 한 국가가 된다. 에브라임의 회개(31:18-20)

31:15-17, 마2:16-18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창30:22-24)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함, 바빌론 포로(베냐민) 생활 집결지(40:1).

여하튼 에브라임과 유다가 회복됨을 하나님은 보여 주신다(31:16-17).

3. 유다의 회복(21-26)

하나님은 포로들에게 귀향길을 잘 외워 두라고 하신다(21). 그 길을 따라 되돌아올 것이므로 31:22의 해석, 여자들이 남자들을 에워싼다. 그 정도로 약자들도 강하다. 혹은 임마누엘

3. 새 언약(31:31-40)

죄 문제의 해결 없이 인간 사회를 좋게 하려는 계획은 결국 실패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이제 하나님은 옛 언약(모세의 언약)을 새 언약으로 대체하신다.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신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주신 옛 언약을 갱신한 것이 아니다. 모든 면에서 새로운 것이다.

1. 돌 판이 아니라 마음 판에 쓰인다(31:33, 고후3; 겔11:19-20)

2. 국가 전체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것이다(34). 개개인이 주님을 믿고 새 마음을 받는다.

3. 옛 언약은 행위를 조절하게 함. 새 언약은 성품의 변화

4. 하나님의 약속(34)

5. 유다와 이스라엘은 새 언약에 근거하여 메시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슌12:10-13;1)

6. 새 언약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마26:27-28)

오늘날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요함에 참여하므로(롬11:12-32; 엡3:1-6)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 언약을 공유한다(히8:7-13; 10:14-18).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요3)

주님은 이스라엘 국가의 영속성,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관계의 영속성에 대해 확증을 주신다(31:35-37).

해와 달과 별들의 규례, 영원하다.

4. 회복: 새 땅과 왕국(32-33)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언자에게 또 하나의 액션 설교를 하라고 하신다.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바로 전, 부동산이 최대로 폭락하였다. 그런데 땅을 사라고 하신다. 백성들이 의아하게 여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함

1. 비논리적인 일(1-44): 1절, 시드기야의 제10년(BC 587), 함락 1년 전, 감옥 뜰에 갇힘(2절, 37:21)

시드기야 왕은 자기와 도시에 대한 대언자의 말을 듣기 원치 않음(32:3-5)

어쩌면 감옥 뜰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보호: 원수들로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

2. 토지 구매(6-15), 아나돗의 토지(7), 아나돗은 전쟁터, 바빌론 사람들의 수중에 놓임
주님의 말씀 대로 그의 사촌 하나넬의 등장, 땅을 사라, 그는 감옥 뜰에 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

예레미야는 감옥 뜰에서 모든 것을 집행함(9-12), 지금이 땅을 살 때인가? 더욱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점령당한 땅을, 예루살렘 사람들의 수군거림

주님의 말씀(14-15)

3. 반응(16-25),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일을 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름. 기도함(17-19)

내용: 하나님의 위대하심(17),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께 어려운 사정을 알린다(24-25)

4. 확증(26-44)

예레미야의 기도(17), 하나님의 확증(27), 도시는 결국 망할 것이다(32:28-35). 백성의 우상 숭배, 물렉 숭배(33-35)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다(36-44). 37-38절을 보라.

새 언약이 발효될 것이다(39).

확증(43)

지금도 우리를 비웃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실 것이다.

크고 강력한 것들(33)

33:3,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 줄 것이다.

크고 강력한 것들, 찾을 수 없는 것들, 가려져서

여기서는 대언자의 백성과 관련된 것들(4)

더러운 백성이 치유되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6-8)

도시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9).

사람들이 찬양할 것이다(10-11).

메시아 왕이 다스릴 것이다(14-16).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증가시킬 것이다(22. 창15:1-5).

불쌍히 여길 것이다(33:26).

거짓 대언자들(동성애, 낙태 공산주의 사회주의), 변영 복음 우상 숭배, 성도들과 백성들 고생 대한민국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구출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1^o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면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멸망한다 성경말씀: 렘34-36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대언자 예레미야 등의 신실한 사역, 그러나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면 결국 망한다. 이스라엘, 유다, 조선

유다: 이집트 탈출, 모세의 율법, 다윗, 솔로몬, 메시아 왕조,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도 망한다.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바빌론이라는 이교도 국가에 의해

이유: 지혜롭지 않은 정치 리더들, 이집트 선택, 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아예 멸시하고 천대함, < > 구체적인 사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직무를 방기함
돈만 쫓아다님, 거짓 말씀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34)

유다는 바빌론의 3차 침공으로 BC 586년 멸망, 34장은 멸망 2년 전인 588년경의 일

느부갓네살의 침공, 7절, 이제 라기스(예루살렘에서 45km)와 아세가(29km) 두 개의 요새 도시만 남았다. 느부갓네살 바빌론 군대 총동원, 주변 속국들도 군대를 보내게 함(1), 말 그대로 유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유다를 대박함

1.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다시 한 번의 회개 기회를 주심(1-7).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아마도 가장 우유부단한 왕, 조선의 고종 비슷함,

예레미야의 경고: 너와 네 백성 그리고 신하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2). 너도 잡혀간다(3). 그러나 평안히 죽고 왕으로서 애도를 받는다(5).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2. 백성의 배신(8-22), 바빌론 군대가 에워쌀 때 어느 시점에 왕과 백성은 성전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음, 유다 사람 노예들을 해방하기로 함(34:8-9).

유대인 율법, 유대인 노예는 7년 봉사 후 해방(14, 출21:1-11, 신15:12-18).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이 법대로 실천하지 않음.

그러다가 바빌론 침공이 있자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이제 그것을 실행함(1). 즉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함

실제적인 이득: 노예 해방, 주인들이 먹일 필요 없다. 노예들이 자유를 얻은 뒤 나가서 싸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오래가지 않았다(11).

중동 지방의 언약 의식(18-19), 송아지, 중간을 나누고 그 가운데로 걸어감(창15:17)

그리고는 언약을 어김

바빌론 군대 이집트를 치러 감(34:21-22), 그러자 주인들이 다시 이들을 구속함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함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백성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

하나님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구원(13), 이들은 이것을 다 잊음

자기 동포를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율법 무시

어려움을 당하자 언약을 세우고는 어려움이 사라지는 듯하자 곧바로 파기함

그 결과 이들은 칼과 재앙과 기근에 의해 멸망한다(17).

무서운 죽음을 당한다(19-20).

이런 일은 유다 백성에게만 있지 않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당하면 언약, 어려움이 풀리면 다시 배반

3.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35)

35장 사건은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일어남, 34장 사건이 있기 18년 전 즈음

예레미야는 순서대로 이 책을 기록하지 않음

34장 백성의 말씀 무시, 35장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 비교

레갑 사람들, 자기 조상 요나답(6, 왕하10:15-23의 여호나답)의 말에 충성하던 유목민.

그의 말(6-7): 집 짓고 거기 살지 말라. 농자으 포도원 소유하지 말라. 포도즙/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들의 조상들은 모세의 장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삿1:16; 4:11),

여하튼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명령에 따라 유다 왕국에서 250년 동안 분리주의자로 남음.

바빌론 침공(11), 더 이상 밖에서 살 수 없어서 장막을 보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옴
이때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보도록 또 한 번 action 설교를 한다(5).

그들은 자기들 조상의 명령을 지키려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6).

이처럼 사람의 말도 지키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14-15).

하나님은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을 칭찬하지 않고 조상의 명령을 지킨 것을 칭찬하신다.
백성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레갑 자손들은 신실하게 자기 조상의 명령을 따른다. 사람의 말인데도
그런데 유다와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17), 결국 멸망한다.

우리 주변을 보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이 물려받은 전통을 지키려고 혹은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가?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을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지금 정성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어려운 시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는가? 신실하게?

3. 하나님의 말씀 파괴와 보존(36)

36장은 여호야김의 제4년(1), BC605년경, 갈그미스 전투, 이집트의 파라오느고 사망
요시야 이후 유다의 왕들, 1. 그의 아들 여호야하스(3달 통치, 파라오 느고), 2. 그의 형제 여호야김(11년,
느부갓네살), 3.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3달, 느부갓네살), 4.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마지막
왕, 11년, 느부갓네살)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그의 형제 여호야하스를 축출하면서 왕이 됨(렘46:2; 대하35:20-27).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제13년부터 사역 시작, 이 당시까지 약 23년 동안 말씀 선포

하나님께서 말씀들의 보존을 위해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심(2)

내용, 이스라엘, 유다, 주변 민족들

첫 번째 두루마리는 불타고 두 번째 두루마리를 기록함, 추가의 말씀(36:32)

처음 45장 유다와 이스라엘(45장은 바룩), 46-51장 주변 국가들, 52장 다시 한 번 요약 정리

1.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1-4, 17-18)

영감(4절, 기록하는 일, 딤후3:16; 벧후1:20-21)

기계적으로 받아쓰는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에 기록자가 전혀 오류 없이 기록한다.

기록자의 스타일, 어휘 등 그대로 반영됨

예레미야기 기록하는 모든 말들에 오류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

예레미야는 말들을 하고 실제로는 바룩이 기록함(4)

로마서 16장 22절, 바울의 말, 더디오가 기록함

2. 하나님이 말씀을 밝히 선포하게 하심(5-26)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심(롬10:11). 선포자가 있어야 한다.

예레미야가 간혀서 들어갈 수 없으므로 바룩이 대신 가서 선포한다(5-6).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 그날은 금식하는 날(6)

아마도 바빌론 침공 때문에 금식이 선포됨, 이때를 이용함

3.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세 번 선포됨,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

1. 성전에서 백성에게(36:8, 10)

백성의 반응은 기록되지 않음, 미가야가 듣고 근심함(11). 그는 사반의 손자

-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시대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 책을 요시야 왕에게 낭독한 사람(왕하 22). 그래서 그의 손자 미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짐
2. 미기야가 통치자들에게 고함, 바룩이 이들 앞에서 낭독함(12-19)
통치자들 말씀을 듣고 두려워함(16), 국가의 위험을 깨닫고,
두루마리를 숨기고(20)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숨으라고 함(19)
 3. 왕 앞에서 여후디가 다시 낭독함(21-26)
왕이 칼로 두루마리를 찢어서 화로에 집어넣음(23)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25)
 4.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말씀 파괴 시도, 그러나 실패함
마24:35
특별히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성경 금서, 번역 및 해석 불가능
하나님이 보존하신다(27-32), 시12:6-7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록하라고 하신다(28절). 그리고 추가적인 말씀들을 적으라고 하신다(32).
특별히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30-31)
그는 왕으로서 위엄을 지키지 못하고 매장도 되지 못한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 승계, 3달 통치, 그 뒤 그의 형제 시드기야 왕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국가 구원, 자기 구원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없음이 하나도 없는 성경
국문법에 맞는 성경
지난 30년 간의 노력,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성경만 자기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
그대로 믿고 지켜야 한다.

예레미야 11 통치자와 백성의 교만과 어리석음 그리고 국가의 멸망(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국가의 멸망을 피할 수 있다).

성경말씀: 렘37-39

왜 우리는 성경을 읽는가?

롬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구약 성경, 국가와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 특히 대언서는 더욱 그러하다.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는 더욱더 그러하다.

예레미야는 2번을 강해한다. 그만큼 국가의 위기가 심각하다. 목사의 책무
지난 시간, 유다 백성의 패망의 원인: 즐기치게 하나님의 말씀 거역,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대언자가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화로에 태운다.

이제 드디어 유다는 생존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가장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왕, 선한 왕 요시야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 >, 드디어 그 날이 왔다.

지금 바빌론 군사들이 성문 앞까지 와 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요18-19에는 예수님을 심문하는 빌라도, 시드기야는 빌라도만큼이나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인물
조선의 고종과 너무나 비슷하다. 결국 나라의 멸망

이 위기의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2차레나 예레미야와 접촉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다(37:1)

37장: 옥에 갇히는 예레미야

1.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1-10)

자기 신하들의 지지를 잃을까 봐 시드기야는 여후갈과 스나바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나라를 위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다(3).

그런데 2절에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주어진 말씀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해 달라고 한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여후갈은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38:1에는 유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38:1, 4).

아직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지 않아서 자유롭게 왕래함(4).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다.

당시 상황, 이집트 군대의 출현, 바빌론 군대가 이들을 대적하려고 잠시 예루살렘을 떠남(5).

거짓 대언자들 등장: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 바빌론 군대가 떠났다.

그들의 주장: 이것은 마치 히스기야 당신에 아시리아 군대가 몰살당한 것과 비슷하다(사36-37장).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바빌론 군대가 다시 돌아온다. 결국 이 도시를 불태울 것이다
(9-10).

2. 다른 말씀이 있느냐(11-21)

바빌론 군대가 떠난 뒤 예레미야는 집안일을 보려고 자기 고향 아나돗(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함(12, 렘1:1)

파수대 대장 이리야가 그를 붙잡음. 적에게 항복하러 간다(13). 사실 예레미야는 즐기치게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선포함(21:9; 38:2, 19; 39:9). 그는 배신자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결국 그는 통치자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힘(15)

시드기야는 이것을 보고 예레미야와 이야기할 기회로 삼음(17)

자기의 궁으로 그를 데려온 뒤 묻는다(17), “주님이 주신 다른 말씀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바빌론 왕의 손에 왕이 넘겨질 것입니다(17)”.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동일한 메시지 전달,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또 묻는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 대언자는 거짓 대언자들의 속임수에 대해 말한다.

왜 나를 가두느냐(18)

거짓 대언자들은 어디에 있느냐?(19)

그리고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을 요청함(20)

왕의 허락: 감옥 뜰, 매일 정해진 양의 배급(사57:1-2)

왜 시드기야는 자기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지 못할까? 자기 신하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38장: 예레미야의 지하 감옥 투옥과 시드기야의 멸망

1.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힘

4명의 통치자들이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그를 감옥에 넣을 것을 왕에게 촉구함(1-4).

그들의 주장: 예레미야가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다(4).

1절의 그달리야는 유다 총독 그달리야가 아니다. 바스홀의 아들, 바스홀(임멜의 아들)은 예레미야를 차꼬에 넣은 자(20:1-6). 유같은 37:3의 여후갈, 딸기야의 아들 바스홀은 20장의 바스홀이 아니다.

여하튼 이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를 처형하려고 함

왕은 힘이 미약해서 통치자들의 말에 굴복한다(5).

이에 그들은 그를 지하 감옥에 집어넣는다(6).

아마도 물 저장고,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죽기를 바람

이때에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등장하여 그를 구한다(7).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성경, 맨 마지막에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의 말(9)

왕의 명령(10)

예레미야의 구출(11-12)

나중에 우리 주님은 도시가 함락될 때 에벳멜렉을 살려 주심(39:15-18)

2. 시드기야의 공포와 예레미야의 조언(14-28)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시드기야는 몇 차례 예레미야와 접촉한다. 여기서 4번째, 마지막 접촉 시드기야의 요청(14): 내게 진실을 말하라.

예레미야의 딜레마: 말하면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15-16).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주님의 말씀(17-18): 바빌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내가 살고 나라가 산다(17). 그러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18)

그런데 시드기야는 결국 변명하다가 망하고 만다(19).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이 두렵다(19).

예레미야의 설득(20)

항복하지 않을 때의 상황(22-23)

시드기야는 신하들을 두려워함(25)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27).

실제로 그는 왕에게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을 것이다.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 하나님은 자신의 대언자를 보호해 주신다(28).

3. 죄로 가득한 나라가 망할 때의 특징: 연약하고 무능한 지도자 출현

그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국가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감

한 국가는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

하나님의 간섭과 기적이 없다면(이승만과 박정희):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문재인 UN 방문

공항에 마중 나온 미국 사람들 없다.

방탄 소년단 데리고 연설장, 연설장이 거의 텅텅 비었다.

종전선언 공허한 연설

부동산 거의 2배 폭등, 청년들 희망 탈취, 나라 빛, 2017년 출범 당시 국가부채는 660조원이었지만
집권 5년 차인 2022년에는 107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국가부채 증가분은
410조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부채 증가의 합보다 더 크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011100049>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 좋은 지도자, 강한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 이왕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그래야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산다.

39장: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39)

렘39, 52 그리고 왕하 25, 대하 36은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보여 준다.

애가는 당시의 비극적인 일들

요시야 이후 4명의 유다 왕들,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나라가 살고
왕이 살았을 것이다.

1.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39:1-7, 52:1-11)

BC 588년 1월 15일 예루살렘 포위 시작(렘39:1; 52:4), 2년 반 동안, 586년 7월 18일 도시
함락됨

시드기야의 9년 10월 10일(52:4), 지금의 양력으로 바꾸면 1월 15일(추운 겨울)

11년 4월 9일(39:20), 지금의 양력으로 7월 18일(더운 여름)

바빌론 왕의 통치자들 심판 시작(3)

시드기야 등 도망감(4). 그러나 붙잡힘(5)

그의 아들들과 그 심판(6-7)

도시 파멸

백성을 포로로 끌고감, 가난한 자들을 남기고(8-10)

렘32:31

도시가 함락되리라는 예레미야의 말들이 성취됨(6:6; 19:8-9, 11-12, 15; 21:10; 26:6, 11;
27:17)

2. 하나님의 예레미야 보호(11-14)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여 예레미야를 구해 주시고 총독 그달리아에게 그를 맡김

3. 에벳멜렉 구출(15-18), 18절

결론

평안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도의 길로 나가면 우리에게도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이 닥칠 수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해야 한다.

올바른 지도자를 주님께 구해야 한다.